



수시 | 17-34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of Population Growth and Migration of Innovation City

윤영모 외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of Population Growth and Migration of Innovation City

윤영모 외

■ 연구진

윤영모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정우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정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변필성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

김동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본 연구는 인구가동분석을 통해 7개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
- 2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11.6만 명이 순유입되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지방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
- 3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인구의 순유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 이에 따라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유입 촉진,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완화 등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 추진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보육 및 교육수요가 높은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혁신도시 유입 증가에 대응하여 보육·교육시설의 적기확충 및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수준높은 보육·교육여건 조성 추진 필요
- 2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촉진 및 통근연계 강화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확충 및 환승체계 구축 등 교통연계 강화 추진
- 3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동반발전을 촉진하고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 필요
- 4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주변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한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광역시·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	---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 연구의 흐름 및 주요 연구내용	8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현황

1.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성장 추이	13
2.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구조 변화	16
3.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성장 비교	18
4. 종합 및 시사점	20

제3장 혁신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1. 분석의 틀	25
2. 혁신도시별 순이동인구	28
3.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지역별 구성	29
4.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연령대 구성	38
5.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이동사유	45
6. 종합 및 시사점	57

제4장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 1. 기본방향 63
- 2.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64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요약 및 결론 75
-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78

참고문헌 81



CHAPTER 1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3. 연구의 흐름 및 주요 연구내용 | 8
-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9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혁신도시 기반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고 혁신도시 인구가 대폭 증가

- 2012년말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약 5년이 경과한 현재('17.6월 기준) 공공기관 이전이 92% 수준으로 사실상 완료단계¹⁾
- 혁신도시 기반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혁신도시 인구는 최근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15년말 10.4만 명→'17년 6월 16.6만 명)

표 1-1 | 혁신도시별 인구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획인구	인구 현황				
		'15년말(A)	'16년말	'17.6월(B)	증감(B-A)	증가율 [(B-A)/A]
부산혁신도시	7,000	7,795	7,699	7,612	-183	-2.3%
대구혁신도시	22,000	5,922	12,151	13,641	7,719	130.3%
울산혁신도시	20,000	17,270	19,920	20,364	3,094	17.9%
광주전남혁신도시	49,000	12,452	21,406	26,472	14,020	112.6%
강원혁신도시	31,000	10,337	17,802	20,342	10,005	96.8%
충북혁신도시	39,000	8,200	11,685	13,593	5,393	65.8%
전북혁신도시	29,000	21,056	25,161	26,773	5,717	27.2%
경북혁신도시	27,000	9,234	16,332	18,409	9,175	99.4%
경남혁신도시	38,000	9,848	13,468	14,434	4,586	46.6%
제주혁신도시	5,000	1,932	3,946	3,958	2,026	104.9%
계	267,000	104,046	149,570	165,598	61,552	59.2%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내부자료.

1) 11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07개 기관 이전 완료. 미이전기관 8개의 경우 2018년말까지 이전 완료 예정.

□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도시 정착 미흡, 구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미흡

- 혁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율이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하고, 오히려 구도심 및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 및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²⁾
- 이 중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율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혁신도시 건설이 구도심 및 주변지자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

□ 혁신도시 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등의 인구유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 도출 필요

-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된 결과이므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도시 이주율에 집중한 기존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연구 필요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주변 지역 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 필요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

2) 류승한. 2017.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시즌2 전략포럼 자료집. 국토교통부; 한국일보. 2017.9.5.일자([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구도심 쇠퇴 부르는 '블랙홀'... 멀어지는 균형발전); 강승수 · 서유석. 2016. 혁신도시가 기존도시의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연구. 주거환경. 14(4). pp.215-232. 한국주거환경학회;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15. 지역생활권 내에서 혁신도시의 역할과 기능연구. p191. 국토교통부; 서재교.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IF Report 2015-04.; 아시아경제. 2014.12.4.일자([혁신도시]革飛舊落 도시 몸살이 '처방 1순위')

-
- 혁신도시 건설 전후를 구분하여 혁신도시와 지역 간 인구이동 변화를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유입인구의 정착률 제고, 혁신도시, 모도시 및 주변 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7개 혁신도시 및 주변 지자체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 및 주변 지자체로 설정
 - 전체 10개 혁신도시 중 지방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는 소재지자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크고, 주변지역의 인구 증감 및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설정
 - ※ 분석대상: 강원혁신도시(원주),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 경북혁신도시(김천), 경남혁신도시(진주), 제주혁신도시(서귀포) 및 주변 지자체

□ 시간적 범위 : 2008~2016년

- 본 연구의 기준연도는 2017년으로 설정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의 기준연도는 2017년으로 설정하고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
 - 단, 인구이동 분석은 2008~2016년을 기준으로 설정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혁신도시 관련 정책 및 계획, 혁신도시별 현황 및 지역특성 등에 관한 문헌 조사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 변화 등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 등 조사

□ 통계분석

-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인구 증감, 인구이동 및 이동자 특성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분석 실시

3)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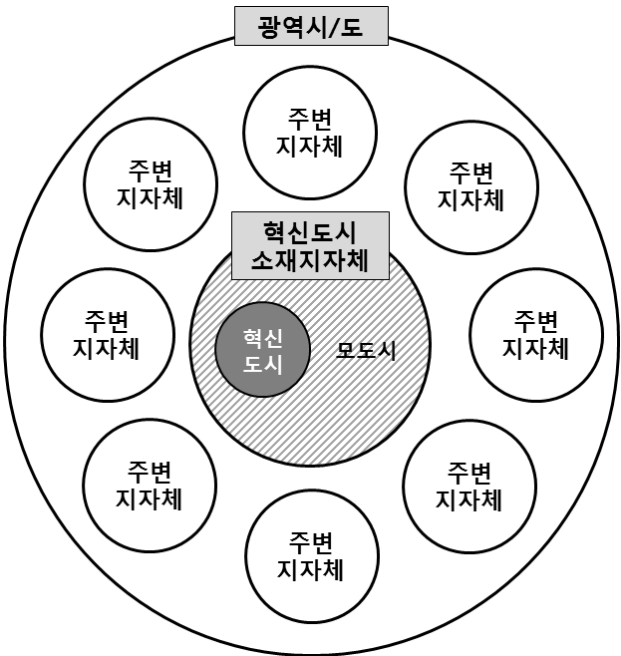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를 ‘혁신도시’ 및 ‘모도시’로 구분하고,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와 동일 시·도에 입지한 지자체를 ‘주변지자체’로 구분하는 등 분석대상지역을 조작적으로 정의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혁신도시가 입지해있는 시·군 (혁신도시 및 모도시를 포함)
 - 혁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개발된 읍·면·동. 즉 혁신도시가 입지한 읍·면·동³⁾. 단, 혁신도시 개발 이후 분동(分洞) 등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읍·면·동을 혁신도시로 간주⁴⁾
 - 모도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관할구역 중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 주변지자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와 동일 시·도에 속하는 지자체

3) ‘혁신도시’의 범위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이 경우 통계자료 구득이 불가능.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와 가장 근접한 공간단위인 시군구 단위로 통계자료 구득이 가능한 ‘혁신도시 입지 읍·면·동’을 ‘혁신도시’로 설정.

4)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등 3개 혁신도시 해당. 예를 들어, 경북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지정 시 행정구역은 김천시 남면 및 농소면이었으나, 이후 혁신도시를 별도로 분동(分洞)하여 읍곡동으로 신설·개편.

표 1-2 | 분석대상지역의 조작적 정의

구 분		조작적 정의 (공간적 범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시·군)	혁신도시	▪ 혁신도시가 입지한 읍·면·동
	모도시	▪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주변 지자체		▪ 혁신도시와 동일한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지자체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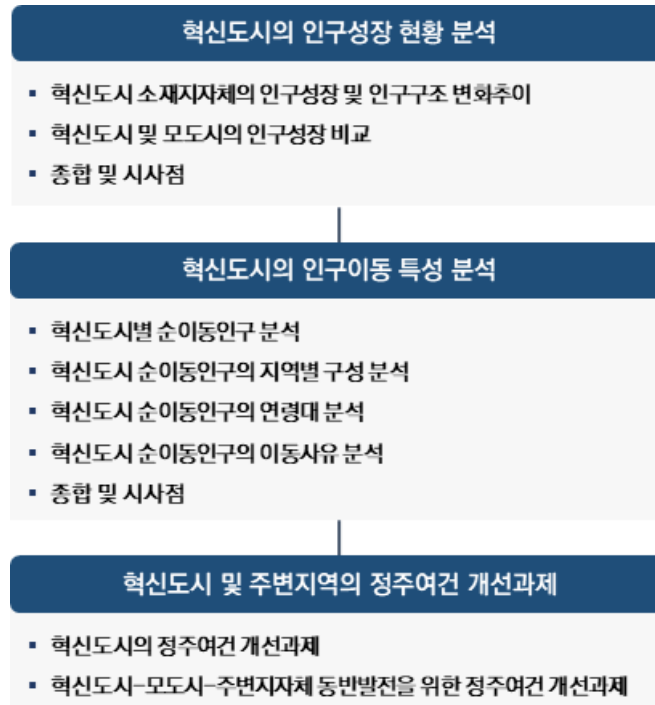


구 분	혁신도시 지정시 행정구역(2006년) (A)	현재 행정구역 (2016년) (B)	본 연구의 혁신도시 공간범위 (A+B)
광주전남혁신도시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나주시 빛가람동, 금천면, 산포면
경북혁신도시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농소면 일원	경상북도 김천시 울곡동	김천시 울곡동, 남면, 농소면
경남혁신도시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동, 문산읍, 금산면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시 충무공동, 문산읍, 금산면, 가호동

3. 연구의 흐름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흐름

그림 1-1 | 연구 흐름도



□ 연구의 주요 내용

-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현황
- 혁신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연구자: 김진범 외. 2017. • 연구목적: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내발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2단계 지원제도 개발	• 문헌조사 • 전문가자문 • 면담조사	• 혁신도시 지원제도 개요 및 지원현황 분석 • 지역발전계획 분석을 통한 2단계 정책과제 도출 • 2단계 정책과제 관련 해외 정책사례 분석 • 2단계 정책과제 관련 정책수단 제시
	2	• 과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 연구자: 변재연. 2016. • 연구목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계획대비 추진실적과 사업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개요 및 현황 • 실태분석 및 평가(기관 이전, 직원 이주, 지역활성화, 업무효율성, 산학연 클러스터 등) • 개선방안 제시
	3	• 과제명: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 연구자: 권영섭 외. 2015. • 연구목적: 공공기관 및 종사자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점검 및 효과 극대화 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면담조사 • 전문가자문	• 공공기관 이전 추진배경과 지역발전효과 • 국내외 사례와 혁신도시 사업추진 현황 •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발전효과 분석 •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방안
	4	• 과제명: 혁신도시 정책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 연구자: 김진범 외. 2014. • 연구목적: 혁신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새로운 혁신도시 미래상 설정과 정책과제 제시	• 문헌조사 • 전문가자문 • 통계분석	• 혁신도시 정책의 개요 •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 혁신도시의 미래상과 추진전략
본 연구		• 과제명: 혁신도시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 간 인구가동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	• 문헌조사 • 전문가자문 • 통계분석	•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현황 분석 • 혁신도시 건설 전/후의 인구가동 변화 분석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의 동반발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

2) 본 연구의 차별성

□ 혁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체로 연구범위를 혁신도시에 한정하고 있으며 종합적 정책 개선방안 제시에 집중

- 혁신도시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혁신도시 정책 전반에 관한 종합적 평가 및 정책개선의 기본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연구범위 측면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이주율,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혁신도시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증분석에 기반한 정주환경 개선과제 도출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 (연구목적) 선행연구는 혁신도시 정책 전반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인구이동 분석결과에 기반한 정주환경 개선과제 도출에 집중함으로써 실증적 분석결과 제시 및 구체적 정책과제 도출 가능
- (연구범위 및 대상) 선행연구는 대체로 연구범위 및 대상을 혁신도시 또는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혁신도시와 지역 간 인구이동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연구범위를 확대
또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를 포함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
- (연구방법론) 선행연구는 대체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등 정성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방법론 및 분석결과의 객관성을 제고



CHAPTER 2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현황

- 1.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성장 추이 | 13
- 2.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구조 변화 | 16
- 3.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성장 비교 | 18
- 4. 종합 및 시사점 | 20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현황

1.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성장 추이

□ 전국적인 인구 증가율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 증가율은 상승 추세

- 전국 인구는 2008~2012년 2.8%p 증가하였으나 2012~2016년에는 1.5%p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 하락

- 2008~2012년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증가율은 각각 3.9%p, 1.1%p에서 2012~2016년 1.8%p, △0.5%p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

- 동기간 7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9개 시·군)의 인구 증가율은 2.4%p에서 4.5%p로 약 2배 상승하여 전국 및 수도권과는 상반되는 높은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냄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중에서도 나주시(광주·전남혁신도시), 서귀포시(제주혁신도시), 완주군(전북혁신도시), 진천군(충북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나주시 18.5%p, 서귀포시 11.0%p, 완주군 10.8%p, 진천군 10.2%p 등으로 혁신도시 건설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
- 특히 나주시, 김천시는 2012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인구 증가 추세로 전환
- 반면, 원주시, 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인구 증가추세가 둔화

표 2-1 | 7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 성장 추이(2008-2016년)

(단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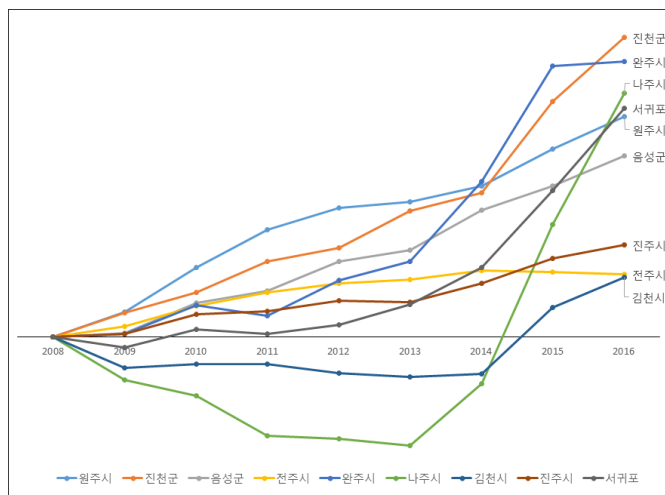
구 분	총 인 구			증 감		증 가 율	
	2008년	2012년	2016년	`08-`12년	`12-`16년	`08-`12년	`12-`16년
전 국	49,540,367	50,948,272	51,696,216	1,407,905	747,944	2.8%	1.5%
수도권	24,185,787	25,132,598	25,590,465	946,811	457,867	3.9%	1.8%
광역시	10,073,305	10,185,183	10,138,974	111,878	-46,209	1.1%	-0.5%
시급 도시	9,843,415	10,290,791	10,439,219	447,376	148,428	4.5%	1.4%
군급 도시	3,474,412	3,296,291	3,267,267	-178,121	-29,024	-5.1%	-0.9%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1,884,803	1,930,292	2,017,243	45,489	86,951	2.4%	4.5%
원주시	303,975	323,885	337,979	19,910	14,094	6.5%	4.4%
진천군	60,715	63,458	69,950	2,743	6,492	4.5%	10.2%
음성군	89,542	92,980	97,787	3,438	4,807	3.8%	5.2%
전주시	631,532	648,863	651,744	17,331	2,881	2.7%	0.4%
완주군	83,757	86,164	95,480	2,407	9,316	2.9%	10.8%
나주시	92,884	88,067	104,376	-4,817	16,309	-5.2%	18.5%
김천시	138,056	135,504	142,256	-2,552	6,752	-1.8%	5.0%
진주시	331,222	337,314	346,739	6,092	9,425	1.8%	2.8%
서귀포	153,120	154,057	170,932	937	16,875	0.6%	11.0%

주 1)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2) 각급도시 인구는 수도권 시·군, 광역시에 속하는 군, 혁신도시 소재 시·군 등을 제외한 시·군의 인구.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kosis.kr>)

그림 2-1 | 7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 변화(2008-2016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kosis.kr>)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 증가율은 각 시·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각 시·도의 인구 성장에 크게 기여

-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9개 시·군)의 인구는 약 8.7만 명 증가(4.5%p)한 반면 혁신도시 주변지자체(99개 시·군)의 인구는 5.1만 명 증가(0.4%p)
- 즉 2012년 이후 혁신도시가 입지한 7개 시·도의 인구 증가분(138,405명) 중 혁신도시 소재지자체(9개 시·군)의 인구 증가분(86,951명)이 62.8%를 차지하여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
- 한편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주변 지자체 인구는 감소

표 2-2 | 7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및 주변 지자체의 인구 성장추이 비교(2008-2016년)

구 분		인 구			증 감		증가율	
		2008년	2012년	2016년	'08~'12년	'12~'16년	'08~'12년	'12~'16년
강원	원주시	303,975	323,885	337,979	19,910	14,094	6.5%	4.4%
	주변지자체(17개 시·군)	1,204,600	1,214,745	1,212,827	10,145	-1,918	0.8%	-0.2%
충북	진천군	60,715	63,458	69,950	2,743	6,492	4.5%	10.2%
	음성군	89,542	92,980	97,787	3,438	4,807	3.8%	5.2%
	주변지자체(9개 시·군)	1,369,330	1,409,190	1,423,888	39,860	14,698	2.9%	1.0%
전북	전주시	631,532	648,863	651,744	17,331	2,881	2.7%	0.4%
	완주군	83,757	86,164	95,480	2,407	9,316	2.9%	10.8%
	주변지자체(12개 시·군)	1,140,483	1,138,314	1,117,567	-2,169	-20,747	-0.2%	-1.8%
전남	나주시	92,884	88,067	104,376	-4,817	16,309	-5.2%	18.5%
	주변지자체(21개 시·군)	1,826,116	1,821,551	1,799,538	-4,565	-22,013	-0.2%	-1.2%
경북	김천시	138,056	135,504	142,256	-2,552	6,752	-1.8%	5.0%
	주변지자체(22개 시·군)	2,535,875	2,562,849	2,558,142	26,974	-4,707	1.1%	-0.2%
경남	진주시	331,222	337,314	346,739	6,092	9,425	1.8%	2.8%
	주변지자체(17개 시·군)	2,894,033	2,982,000	3,027,132	87,967	45,132	3.0%	1.5%
제주	서귀포시	153,120	154,057	170,932	937	16,875	0.6%	11.0%
	주변지자체(1개 시·군)	407,498	429,656	470,665	22,158	41,009	5.4%	9.5%
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소계	1,884,803	1,930,292	2,017,243	45,489	86,951	2.4%	4.5%
	주변 지자체 소계	11,377,935	11,558,305	11,609,759	180,370	51,454	1.6%	0.4%
	계	13,262,738	13,488,597	13,627,002	225,859	138,405	1.7%	1.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kosis.kr>)

2.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구조 변화

□ 전국적으로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가운데에서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구조를 유지

□ 첫째,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2012년 이후 유소년인구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완만

- 전국의 유소년인구(0~14세)는 2012년 이전 △10.5%p, 2012년 이후 △9.3%p 등 △10%p 내외의 감소 추세가 지속
- 반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유소년인구는 2012년 이전 △11.5%p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6.2%p로 완화
- 특히, 진천군, 완주군, 나주시, 서귀포시는 2012년 이후 유소년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나주시는 2012년 이후 유소년인구가 33.3%p 증가

표 2-3 | 혁신도시 소재 시·군의 유소년인구 성장추이(2008-2016년)

(단위: 인)

구 분	유소년인구(0-14세)			증 감		증 가 율	
	2008년	2012년	2016년	'08~'12년	'12~'16년	'08~'12년	'12~'16년
전 국	8,518,987	7,624,687	6,916,147	-894,300	-708,540	-10.5%	-9.3%
수도권	4,192,395	3,792,998	3,446,632	-399,397	-346,366	-9.5%	-9.1%
광역시	1,717,665	1,496,657	1,331,752	-221,008	-164,905	-12.9%	-11.0%
시급 도시	1,796,865	1,640,009	1,480,360	-156,856	-159,649	-8.7%	-9.7%
군급 도시	460,183	376,250	326,147	-83,933	-50,103	-18.2%	-13.3%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339,376	300,270	281,669	-39,106	-18,601	-11.5%	-6.2%
원주시	57,198	52,644	47,988	-4,554	-4,656	-8.0%	-8.8%
진천군	10,625	9,780	9,993	-845	213	-8.0%	2.2%
음성군	15,199	13,347	12,249	-1,852	-1,098	-12.2%	-8.2%
전주시	124,388	108,999	95,526	-15,389	-13,473	-12.4%	-12.4%
완주군	13,408	13,401	13,570	-7	169	-0.1%	1.3%
나주시	12,355	9,866	13,155	-2,489	3,289	-20.1%	33.3%
김천시	20,678	17,286	17,150	-3,392	-136	-16.4%	-0.8%
진주시	58,733	52,086	48,994	-6,647	-3,092	-11.3%	-5.9%
서귀포	26,792	22,861	23,044	-3,931	183	-14.7%	0.8%

주 1)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2) 각급 도시 인구는 수도권 시·군, 광역시에 속하는 군, 혁신도시 소재 시·군 등을 제외한 시·군의 인구.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kosis.kr>)

□ 둘째,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2012년 이후 안정적인 핵심생산가능인구를 유지

- 전국의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2012년 이전 △4.2%p, 2012년 이후 △3.8%p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이전 △5.0%p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0.1%p로 대폭 줄어들어 타 지자체에 비해 안정적인 핵심생산가능인구를 유지
- 특히 나주시, 완주군 및 서귀포시, 진천군, 김천시 등은 2012년 이후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나주시는 2012년 이후 핵심생산가능인구가 25.6% 증가

표 2-4 | 혁신도시 소재 시·군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성장추이(25-49세)

(단위: 인)

구 분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증 감		증 가 율	
	2008년	2012년	2016년	'08~'12년	'12~'16년	'08~'12년	'12~'16년
전 국	21,203,645	20,312,509	19,548,560	-891,136	-763,949	-4.2%	-3.8%
수도권	10,934,194	10,617,159	10,283,375	-317,035	-333,784	-2.9%	-3.1%
광역시	4,292,155	4,008,829	3,773,823	-283,326	-235,006	-6.6%	-5.9%
시급 도시	4,059,223	3,955,445	3,786,768	-103,778	-168,677	-2.6%	-4.3%
군급 도시	1,135,828	973,929	886,914	-161,899	-87,015	-14.3%	-8.9%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752,098	714,673	713,782	-37,425	-891	-5.0%	-0.1%
원주시(강원혁신도시)	128,422	125,685	124,434	-2,737	-1,251	-2.1%	-1.0%
진천군(충북혁신도시)	24,122	23,449	24,504	-673	1,055	-2.8%	4.5%
음성군(충북혁신도시)	35,418	33,718	33,255	-1,700	-463	-4.8%	-1.4%
전주시(전북혁신도시)	259,362	251,042	239,647	-8,320	-11,395	-3.2%	-4.5%
완주군(전북혁신도시)	31,379	29,620	31,495	-1,759	1,875	-5.6%	6.3%
나주시(광주전남혁신도시)	30,996	26,856	33,737	-4,140	6,881	-13.4%	25.6%
김천시(경북혁신도시)	50,488	44,894	45,669	-5,594	775	-11.1%	1.7%
진주시(경남혁신도시)	133,354	125,315	123,534	-8,039	-1,781	-6.0%	-1.4%
서귀포(제주혁신도시)	58,557	54,094	57,507	-4,463	3,413	-7.6%	6.3%

주 1)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2) 각급 도시 인구는 수도권 시·군, 광역시에 속하는 군, 혁신도시 소재 시·군 등을 제외한 시·군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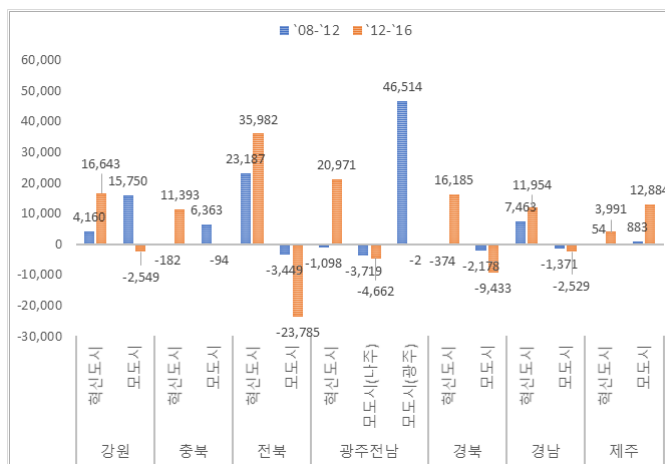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kosis.kr>)

3.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성장 비교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를 혁신도시 및 모도시로 구분하여 인구성장을 비교해보면, 혁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 모도시의 인구는 대체로 감소

- 7개 혁신도시에는 모두 인구가 증가한 반면, 제주혁신도시 모도시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 모도시에는 인구가 감소하여 상반되는 인구성장 추세를 나타냄
- 지방중소도시의 전반적 인구 감소, 혁신도시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모도시 인구가 감소

그림 2-2 |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성장 추이(2008-2016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kosis.kr>)

□ 7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시된 2012년 이후 11.7만 명 증가

- 특히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는 2012년 이전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시된 2012년 이후 인구 증가 추세로 전환
- 혁신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북혁신도시(35,989명), 광주전남혁신도시(20,971명) 등의 순
-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혁신도시(233%), 광주전남혁신도시(225%) 등의 순

표 2-5 |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성장 추이(2008-2016년)

구 분		총인구			증감		증가율	
		2008년	2012년	2016년	08~12	12~16	08~12	12~16
강원 (원주)	강원혁신도시	16,291	20,451	37,094	4,160	16,643	25.5%	81.4%
	모도시	287,684	303,434	300,885	15,750	-2,549	5.5%	-0.8%
충북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11,206	11,024	22,417	-182	11,393	-1.6%	103.3%
	모도시	139,051	145,414	145,320	6,363	-94	4.6%	-0.1%
전북 (전주/완주)	전북혁신도시	57,959	81,146	117,128	23,187	35,982	40.0%	44.3%
	모도시	657,330	653,881	630,096	-3,449	-23,785	-0.5%	-3.6%
광주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10,425	9,327	30,298	-1,098	20,971	-10.5%	224.8%
	모도시(나주)	82,459	78,740	74,078	-3,719	-4,662	-4.5%	-5.9%
	모도시(광주)	1,422,702	1,469,216	1,469,214	46,514	-2	3.3%	0.0%
경북 (김천)	경북혁신도시	7,319	6,945	23,130	-374	16,185	-5.1%	233.0%
	모도시	130,737	128,559	119,126	-2,178	-9,433	-1.7%	-7.3%
경남 (진주)	경남혁신도시	47,807	55,270	67,224	7,463	11,954	15.6%	21.6%
	모도시	283,415	282,044	279,515	-1,371	-2,529	-0.5%	-0.9%
제주 (서귀포)	제주혁신도시	9,226	9,280	13,271	54	3,991	0.6%	43.0%
	모도시	143,894	144,777	157,661	883	12,884	0.6%	8.9%
계	혁신도시	160,233	193,443	310,562	33,210	117,119	20.7%	60.5%
	모도시	1,724,570	1,736,849	1,706,681	12,279	-30,168	0.7%	-1.7%
	계	1,884,803	1,930,292	2,017,243	45,489	86,951	2.4%	4.5%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kosis.kr>)

□ 반면, 7개 혁신도시 모도시의 인구는 2012년 이후 약 3만 명 감소하여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추세와 대비

- 제주혁신도시 모도시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 모도시는 2012년 이후 인구가 감소
 - 제주혁신도시 모도시는 2012년 이후 인구가 12,884명 증가
-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북혁신도시 모도시(△23,785명), 경북혁신도시 모도시(△9,433명) 등의 순
 - 특히, 경북혁신도시 모도시(△7.3%p), 광주전남혁신도시 모도시(나주 △5.9%p), 전북혁신도시 모도시(△3.6%p) 등의 인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2012년 이후 혁신도시의 인구는 11.7만 명 증가, 모도시의 인구는 3만 명 감소하여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총인구가 8.7만 명 증가

- 즉 2012년 이후 혁신도시의 인구는 11.7만 명 증가, 모도시의 인구는 3만 명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총인구는 8.7만 명 증가

- 제주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분이 모도시의 인구감소분을 상회하여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총인구가 증가
- 제주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경우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모도시의 인구가 모두 성장

4. 종합 및 시사점

□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는 86,949명 증가하였으며, 전국 대비 높은 인구 증가율 및 양호한 인구구조 변화 추세를 나타냄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9개 시·군)의 인구는 86,949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증가율은 4.5%p로 동기간 전국 인구 증가율(1.5%p)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
- 전국적으로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하에서도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타 지자체에 비해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작은 양호한 인구구조 변화를 나타냄
- 이에 따라 대부분의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총인구, 유소년인구, 핵심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측면에서 전국 123개 시·군 중 상위권에 포함되는 등 인구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소재한 나주시는 2012년 이후 총인구, 유소년인구, 핵심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에 해당

□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의 인구 증가(또는 인구감소완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혁신도시가 입지한 7개 시·도의 인구 증가분(138,405명) 중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분(86,951명)이 약 63%를 차지
- 특히 혁신도시가 소재한 원주시, 전주시 및 완주군, 나주시, 김천시 등은 주변 지

자체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인구가 증가하여 해당 시·도의 인구 감소추세 완화에 기여

표 2-6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 증가율 순위

구 분		총인구 증가율		유소년인구 증가율		핵심생산가능인구 증가율	
		'08-'12년	'12-'16년	'08-'12년	'12-'16년	'08-'12년	'12-'16년
강원혁신도시	원주시	10	20	19	28	15	19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16	6	18	6	18	12
	음성군	20	15	44	25	25	21
전북혁신도시	전주시	27	42	50	50	20	30
	완주군	24	5	4	9	31	5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시	117	1	112	1	103	1
경북혁신도시	김천시	81	16	89	13	76	15
경남혁신도시	진주시	36	26	38	18	35	22
제주혁신도시	서귀포시	45	4	73	11	47	6

주: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방 123개 시·군 중 순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kosis.kr>)

□ 한편,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모도시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인구는 11.7만 명 증가하였으나 모도시 인구는 3만 명 감소
 - 2012년 이후 제주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 모도시의 인구가 감소
 - 한편, 제주혁신도시 모도시의 인구 증가는 혁신도시 건설효과보다는 제주도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전북혁신도시 모도시, 경북혁신도시 모도시의 인구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3

CHAPTER

혁신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 1. 분석의 틀 | 25
- 2. 혁신도시별 순이동인구 | 28
- 3.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지역별 구성 | 29
- 4.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연령대 구성 | 38
- 5.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이동사유 | 45
- 6. 종합 및 시사점 | 57

혁신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1. 분석의 틀

1) 분석의 개요

□ 인구성장의 핵심요인인 사회적 요인, 즉 혁신도시와 지역 간 인구이동 및 이동자 특성 변화를 분석

- 혁신도시, 수도권, 주변지자체, 모도시, 기타 지역 간 인구 이동량 및 이동자 특성을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

2) 분석의 범위

□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2016년으로 설정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인구이동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12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전·후 4개년 간의 인구이동 변화를 분석
- 즉,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된 2008~2012년(혁신도시 건설 이전), 공공기관 이전 및 인구 유입이 개시된 2012~2016년(혁신도시 건설 이후) 등 2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

□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 및 주변 지자체로 설정

표 3-1 |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역

구 분	지자체 총인구 (`16년말) (A)	혁신도시 계획인구 (B)	총인구 대비 혁신도시 계획인구 (B/A)	분석대상 지역	비고
부산혁신도시	3,498,529	7,000	0.2%		부산
대구혁신도시	2,484,557	22,000	0.9%		대구
울산혁신도시	1,172,304	20,000	1.7%		울산
광주전남혁신도시	104,376	49,000	46.9%	●	나주
강원혁신도시	337,979	31,000	9.2%	●	원주
충북혁신도시	167,737	39,000	23.3%	●	진천, 음성
전북혁신도시	747,224	29,000	3.9%	●	전주, 완주
경북혁신도시	142,256	27,000	19.0%	●	김천
경남혁신도시	346,739	38,000	11.0%	●	진주
제주혁신도시	170,932	5,000	2.9%	●	서귀포
계	8,520,889	267,000	3.1%	7개	-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내부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kosis.kr>)

표 3-2 |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혁신도시	모도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혁신도시 소재)	▪ 원주시 반곡관설동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읍·면·동 중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 - 단, 광주전남혁신도시의 2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조성한 혁신도시임을 감안하여 나주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도 모도시로 설정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충북혁신도시 소재)	▪ 진천군 덕산면 ▪ 음성군 맹동면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전북혁신도시 소재)	▪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완산구 효자4동 ▪ 완주군 이서면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전남혁신도시 소재)	▪ 나주시 빚가람동, 금천면, 산포면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소재)	▪ 김천시 울곡동, 남면, 농소면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소재)	▪ 진주시 충무공동, 문산읍, 금산면, 가호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소재)	▪ 서귀포시 대륜동	

□ 분석의 내용적 범위

- 혁신도시 건설 전 · 후의 지역 간 인구이동 변화 분석
- 혁신도시 건설 전 · 후의 유입인구 특성 변화 분석

표 3-3 | 분석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구 분	주요 분석내용	분석결과와 활용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추이 분석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성장 추이 변화(인구 증감, 인구구조 변화 추이)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성장 구조 (혁신도시 및 모도시의 인구 증감 추이)	·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성장 효과 파악
혁신도시-지역 간 인구이동 분석	· 혁신도시-지역 간(수도권, 각 시·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인구이동 변화	· 혁신도시 유입인구의 지역별 분포 및 연령대, 이동사유 등 파악
혁신도시-지역 간 이동인구 특성 분석	· 혁신도시 및 지역 간 전출입인구의 연령대(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 변화 · 혁신도시 및 지역 간 전출입사유 변화	☞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과제 도출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 도출

3) 분석 자료

□ 혁신도시의 인구 이동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및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⁵⁾

-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전 · 출입지를 읍 · 면 · 동 단위로 파악 가능하고 전 · 출입자의 연령대, 이동사유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도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등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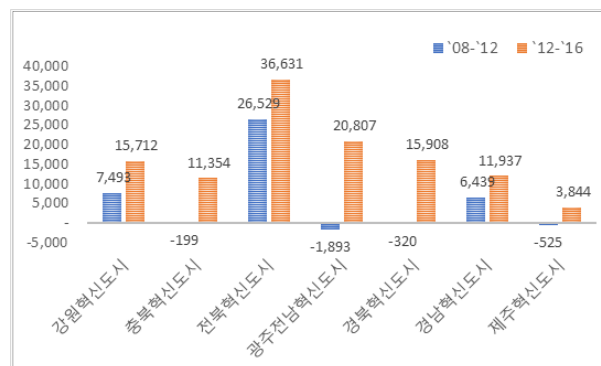
5)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읍 · 면 · 동의 일부에만 해당하거나 다수의 읍 · 면 · 동에 걸쳐 입지해있어 읍 · 면 · 동 단위로 생산되는 통계자료로는 혁신도시만의 인구 변화를 정확히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유. 그러나 혁신도시 인구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읍 · 면 · 동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 경북혁신도시(김천시 율곡동), 경남혁신도시(진주시 충무공동)의 경우에만 혁신도시가 단일 행정동으로 구성.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 기존 읍 · 면 · 동에서 혁신도시 개발지구만 분리하여 행정동을 신설한 것으로서, 혁신도시 개발 전 · 후의 인구이동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동 분리 · 신설 이전의 읍 · 면 · 동을 포함하여 분석)

2. 혁신도시별 순이동인구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는 종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

- 2012년 이전(2008~2012년) 7개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는 37,524명이었으나 2012년 이후(2012~2016년) 116,193명으로 약 3배 증가하면서 7개 혁신도시 모두 인구 순유입 진행
- 7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를 제외한 5개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는 2012년 이전에 비하여 약 2배 증가
- 2012년 이후 순유입인구 규모는 전북혁신도시(36,631명), 광주전남혁신도시(20,807명), 경북혁신도시(15,908명), 강원혁신도시(15,712명) 등의 순

그림 3-1 | 혁신도시별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특히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 등은 2012년까지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인구 순유출 상태였으나 2012년 이후 인구 순유입 추세로 전환

6) 통계청의 '인구총조사(Census)' 자료도 이동자 특성 및 종전거주지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통계 발행주기가 매 5년이어서 시계열 분석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

표 3-4 | 혁신도시별 순유입 인구

(단위: 인)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7,493	15,712	8,219
충북혁신도시	-199	11,354	11,553
전북혁신도시	26,529	36,631	10,102
광주전남혁신도시	-1,893	20,807	22,700
경북혁신도시	-320	15,908	16,228
경남혁신도시	6,439	11,937	5,498
제주혁신도시	-525	3,844	4,369
계	37,524	116,193	78,66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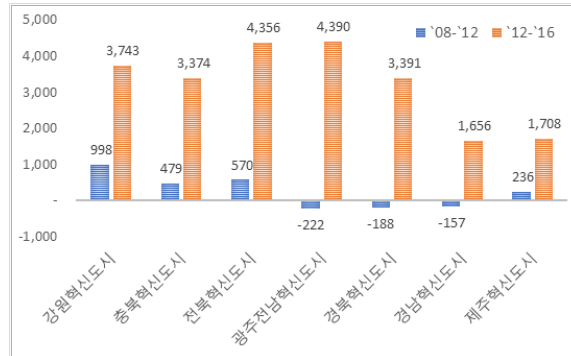
3.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지역별 구성

1) 혁신도시와 수도권 간 인구이동

□ 2012년 이후 수도권에서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22,618명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08~2012년 수도권에서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1,716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이후 22,618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모두 수도권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인구 순유입이 진행 중
 -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까지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인구 순유입 추세로 전환
-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 규모는 광주전남혁신도시(4,390명), 전북혁신도시(4,356명), 강원혁신도시(3,743명), 경북혁신도시(3,391명), 충북혁신도시(3,374명) 등의 순

그림 3-2 | 혁신도시별 수도권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5 | 혁신도시별 수도권 순유입인구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998	3,743	2,745
충북혁신도시	479	3,374	2,895
전북혁신도시	570	4,356	3,786
광주전남혁신도시	-222	4,390	4,612
경북혁신도시	-188	3,391	3,579
경남혁신도시	-157	1,656	1,813
제주혁신도시	236	1,708	1,472
계	1,716	22,618	20,90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한편, 공공기관 이전인원 규모에 비하여 수도권 순유입인구 규모가 큰 곳은 제주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등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이전인원 규모 대비 수도권 순유입인구 비율은 제주혁신도시(208%), 충북혁신도시(108%), 전북혁신도시(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인원은 823명인데 비해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1,708명으로 나타남
 -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인원은 3,116명인데 비해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이보다 큰 3,374명으로 나타남

- 즉 제주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인원보다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남혁신도시(41%)는 공공기관 이전인원 규모 대비 수도권 순유입인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인원은 4,004명이나,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1,656명으로 이전공공기관 인원의 41.4% 수준에 불과

표 3-6 | 이전공공기관 인원 대비 수도권 순유입인구 비율

(단위: 명)

구 분	이전공공기관 인원 [A]	수도권 순유입인구 (`12-`16) [B]	이전공공기관 인원 대비 수도권 순유입인구 비율 [B/A]
강원혁신도시	6,113	3,743	61.2%
충북혁신도시	3,116	3,374	108.3%
전북혁신도시	5,300	4,356	82.2%
광주전남혁신도시	6,923	4,390	63.4%
경북혁신도시	5,561	3,391	61.0%
경남혁신도시	4,004	1,656	41.4%
제주혁신도시	823	1,708	207.5%
계	31,840	22,618	71.0%

주: 이전공공기관 인원은 실제 혁신도시 이주인원이 아닌 정원 기준.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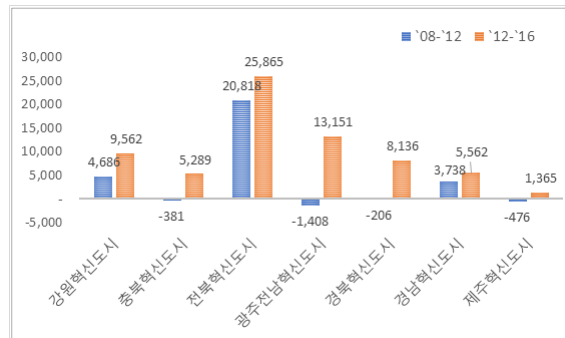
2) 혁신도시와 모도시 간 인구이동

□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68,930명으로 2012년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2012년 이전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26,771명이었으나, 2012년 이후 68,930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특히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혁신도시에서 모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부터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 순유입이 진행됨

- 모도시 중에서 혁신도시 순유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혁신도시(25,865명), 광주전남혁신도시(13,151명), 강원혁신도시(9,562명) 등의 순

그림 3-3 | 혁신도시의 모도시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7 | 혁신도시의 모도시 순유입인구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4,686	9,562	4,876
충북혁신도시	-381	5,289	5,670
전북혁신도시	20,818	25,865	5,047
광주전남혁신도시	-1,408	13,151	14,559
경북혁신도시	-206	8,136	8,342
경남혁신도시	3,738	5,562	1,824
제주혁신도시	-476	1,365	1,841
계	26,771	68,930	42,15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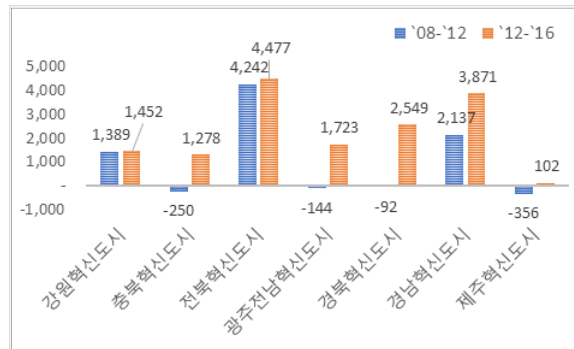
3) 혁신도시와 주변지자체 간 인구이동

- 2012년 이후 주변지자체에서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15,452명으로 2012년 이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

- 2012년 이전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6,926명이었으나, 2012년 이후 15,452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모두 주변지자체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추세
- 특히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주변지자체로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순유입

그림 3-4 | 혁신도시별 주변지자체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2012년 이후 주변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전북혁신도시(4,477명), 경남혁신도시(3,871명), 경북혁신도시(2,5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2년을 기점으로 종전에 비해 주변지자체 순유입인구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혁신도시는 경북혁신도시(2,641명 증가), 광주전남혁신도시(1,867명 증가), 경남혁신도시(1,734명 증가), 충북혁신도시(1,528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8 | 혁신도시별 주변지자체 순유입인구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1,389	1,452	63
충북혁신도시	-250	1,278	1,528
전북혁신도시	4,242	4,477	235
광주전남혁신도시	-144	1,723	1,867
경북혁신도시	-92	2,549	2,641
경남혁신도시	2,137	3,871	1,734
제주혁신도시	-356	102	458
계	6,926	15,452	8,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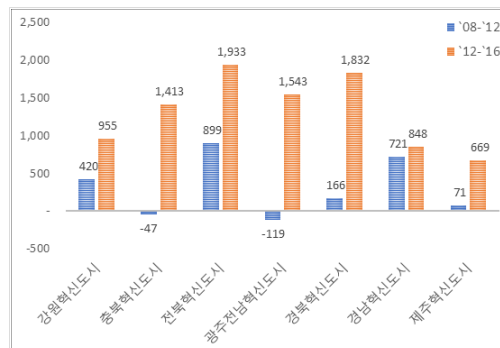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4) 혁신도시와 타 시·도 간 인구이동

□ 2012년 이후 타 시·도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되는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

- 타 시·도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되는 인구는 2012년 이전 2,111명에서 2012년 이후 9,193명으로 4배 이상 증가
- 2012년 이후 타 시·도에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혁신도시(1,933명), 경북혁신도시(1,832명), 광주전남혁신도시(1,543명), 충북혁신도시(1,413명) 등의 순
- 특히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혁신도시에서 타 시·도로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 순유입 추세로 전환

그림 3-5 | 혁신도시별 타 시·도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9 | 혁신도시별 타 시·도 순유입인구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420	955	535
충북혁신도시	-47	1,413	1,460
전북혁신도시	899	1,933	1,034
광주전남혁신도시	-119	1,543	1,662
경북혁신도시	166	1,832	1,666
경남혁신도시	721	848	127
제주혁신도시	71	669	598
계	2,111	9,193	7,08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5) 종합

□ 2012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래 7개 혁신도시의 순유입 인구는 116,693명으로 2012년 이전에 비하여 약 3배 증가

-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는 2008~2012년 37,524명에서 2012~2016년 116,693명으로 78,669명 증가
 - 2012년 이후 순유입인구 규모는 전북혁신도시(36,631명), 광주전남혁신도시(20,807명), 강원혁신도시(15,712명), 경북혁신도시(15,9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 등은 2012년까지 인구 순유출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인구 순유입 추세로 전환

표 3-10 | 혁신도시와 지역 간 순유입인구

구 분		수도권	타 시 · 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계
강원혁신도시	`08-`12	998	420	1,389	4,686	7,493
	`12-`16	3,743	955	1,452	9,562	15,712
	증감	2,745	535	63	4,876	8,219
충북혁신도시	`08-`12	479	-47	-250	-381	-199
	`12-`16	3,374	1,413	1,278	5,289	11,354
	증감	2,895	1,460	1,528	5,670	11,553
전북혁신도시	`08-`12	570	899	4,242	20,818	26,529
	`12-`16	4,356	1,933	4,477	25,865	36,631
	증감	3,786	1,034	235	5,047	10,102
광주전남혁신도시	`08-`12	-222	-119	-144	-1,408	-1,893
	`12-`16	4,390	1,543	1,723	13,151	20,807
	증감	4,612	1,662	1,867	14,559	22,700
경북혁신도시	`08-`12	-188	166	-92	-206	-320
	`12-`16	3,391	1,832	2,549	8,136	15,908
	증감	3,579	1,666	2,641	8,342	16,228
경남혁신도시	`08-`12	-157	721	2,137	3,738	6,439
	`12-`16	1,656	848	3,871	5,562	11,937
	증감	1,813	127	1,734	1,824	5,498
제주혁신도시	`08-`12	236	71	-356	-476	-525
	`12-`16	1,708	669	102	1,365	3,844
	증감	1,472	598	458	1,841	4,369
계	`08-`12	1,716	2,111	6,926	26,771	37,524
	`12-`16	22,618	9,193	15,452	68,930	116,193
	증감	20,902	7,082	8,526	42,159	78,66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7개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가 대폭 증가한 것은 모도시 및 수도권에서 인구가 대거 순유입된 결과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 116,193명 중 모도시 및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91,548명으로 약 79%를 차지
 - 7개 혁신도시의 모도시 순유입인구는 2008~2012년 26,771명에서 2012~2016년 68,930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7개 혁신도시의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2008~2012년 1,716명에서 2012~2016년 22,618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 중 주변지자체 순유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15,452명), 타 시·도 순유입인구는 약 8%(9,193명)를 차지

표 3-11 | 2012~2016년 7개 혁신도시의 지역별 순유입인구 구성

구 분	수도권	타 시·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계
강원혁신도시 (원주)	3,743 23.8%	955 6.1%	1,452 9.2%	9,562 60.9%	15,712 100.0%
충북혁신도시 (진천/음성)	3,374 29.7%	1,413 12.4%	1,278 11.3%	5,289 46.6%	11,354 100.0%
전북혁신도시 (전주/완주)	4,356 11.9%	1,933 5.3%	4,477 12.2%	25,865 70.6%	36,631 100.0%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	4,390 21.1%	1,543 7.4%	1,723 8.3%	13,151 63.2%	20,807 100.0%
경북혁신도시 (김천)	3,391 21.3%	1,832 11.5%	2,549 16.0%	8,136 51.1%	15,908 100.0%
경남혁신도시 (진주)	1,656 13.9%	848 7.1%	3,871 32.4%	5,562 46.6%	11,937 100.0%
제주혁신도시 (서귀포)	1,708 44.4%	669 17.4%	102 2.7%	1,365 35.5%	3,844 100.0%
계 (7개 혁신도시)	22,618 19.5%	9,193 7.9%	15,452 13.3%	68,930 59.3%	116,193 100.0%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2012년 이후 수도권 및 모도시 순유입인구 규모는 전북혁신도시(30,221명), 광주전남혁신도시(17,541명), 강원혁신도시(13,3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2년 이후 수도권 순유입인구 규모는 광주전남혁신도시(4,390명), 전북혁신도시(4,356명), 강원혁신도시(3,743명), 충북혁신도시(3,374명) 등의 순
 - 2012년 이후 모도시 순유입인구 규모는 전북혁신도시(25,865명), 광주전남혁신도시(13,151명), 강원혁신도시(9,562명) 등의 순

□ 즉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수도권 인구뿐만 아니라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인구도 순유입되고 있어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

- 혁신도시가 건설된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약 2.3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된 가운데,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도 약 8.4만 명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68,930명,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15,452명 등으로 나타남
- 즉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총인구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모도시 인구의 혁신도시 순유출로 인한 모도시의 경제기반 쇠퇴 및 정주여건 악화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혁신도시 건설 이후 주변지자체 인구의 혁신도시 순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경우 모도시 인구가 혁신도시로 순유출되어 모도시 쇠퇴 우려가 있으나,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해당지자체의 총인구는 증가
 - 반면, 주변지자체는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어 총인구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겪게 되므로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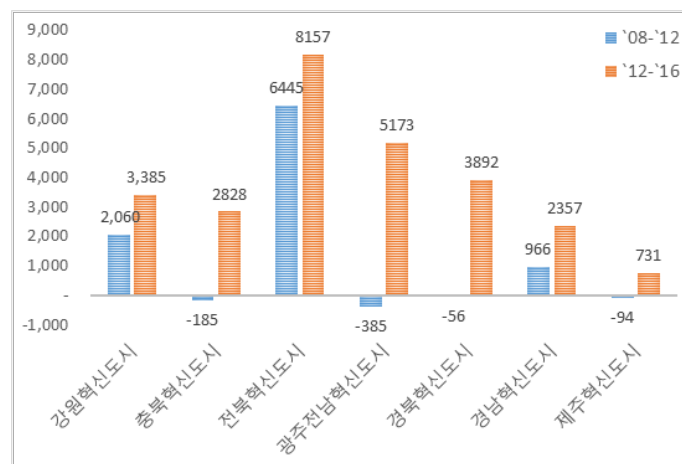
4.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연령대 구성

1) 유소년 인구(0-14세)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의 유소년 인구(0-14세) 유입은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

-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 추세 하에서 7개 혁신도시의 유소년인구 순 유입은 2008~2012년 8,751명에서 2012~2016년 26,523명으로 약 3배 증가
 - 즉, 전국적으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외생적 변수로 인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 2012년 이후 유소년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혁신도시(8,157명), 광주 전남혁신도시(5,173명), 경북혁신도시(3,892명), 강원(3,385명) 등의 순
- 특히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는 2012년 이전까지 유소년인구가 외부로 순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 순유입 추세로 전환

그림 3-6 | 혁신도시별 유소년인구 순유입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12 | 혁신도시별 유소년인구 순유입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2,060	3,385	1,325
충북혁신도시	-185	2,828	3,013
전북혁신도시	6,445	8,157	1,712
광주전남혁신도시	-385	5,173	5,558
경북혁신도시	-56	3,892	3,948
경남혁신도시	966	2,357	1,391
제주혁신도시	-94	731	825
계	8,751	26,523	17,77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 대부분이 모도시 및 수도권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유소년인구 순유입(26,523명)명 중 21%(0.6만 명)는 수도권에서, 57%(1.5만 명)는 모도시에서 유입
-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는 2012년 이전 5,729명에서 2012년 이후 15,21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가장 많은 유소년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전북혁신도시(5,484명), 광주전남혁신도시(3,262명), 경북혁신도시(2,132명) 등의 순
-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는 2012년 이전 744명에서 2012년 이후 5,594명으로 대폭 증가
 - 2012년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유소년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전북혁신도시(1,291명), 전남혁신도시(1,098명), 강원혁신도시(836명) 등의 순
- 한편, 경남혁신도시는 주변지자체에서 유입된 유소년인구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 혁신도시별 지역별 유소년인구 순유입

구 분		수도권	타 시 · 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계
강원혁신	`08-`12	229	58	409	1,364	2,060
	`12-`16	836	210	386	1,953	3,385
	증감	607	152	-23	589	1,325
충북혁신	`08-`12	25	-14	-49	-147	-185
	`12-`16	666	292	347	1,523	2,828
	증감	641	306	396	1,670	3,013
전북혁신	`08-`12	341	86	1,191	4,827	6,445
	`12-`16	1,291	312	1,070	5,484	8,157
	증감	950	226	-121	657	1,712
광주전남혁신	`08-`12	-1	-4	-15	-365	-385
	`12-`16	1,098	395	418	3,262	5,173
	증감	1,099	399	433	3,627	5,558
경북혁신	`08-`12	-16	-14	-50	24	-56
	`12-`16	790	342	628	2,132	3,892
	증감	806	356	678	2,108	3,948
경남혁신	`08-`12	86	52	694	134	966
	`12-`16	605	141	1,053	558	2,357
	증감	519	89	359	424	1,391
제주혁신	`08-`12	80	5	-71	-108	-94
	`12-`16	308	93	30	300	731
	증감	228	88	101	408	825
계	`08-`12	744	169	2,109	5,729	8,751
	`12-`16	5,594	1,785	3,932	15,212	26,523
	증감	4,850	1,616	1,823	9,483	17,77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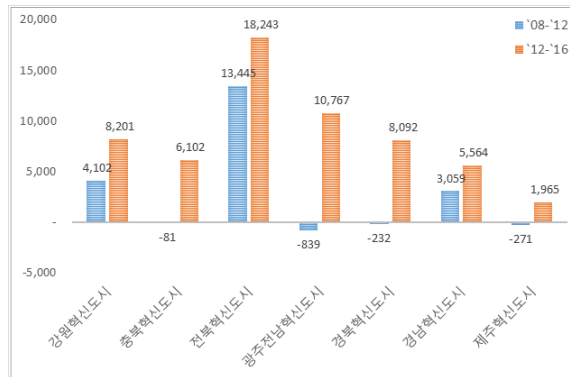
2)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의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순유입은 2012년 이전에 비해 약 3배 증가

- 7개 혁신도시의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은 2012년 이전 19,183명에서 2012년 이후 58,934명으로 약 3배 증가
 - 2012년 이후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이 가장 큰 곳은 전북혁신도시(18,243명), 광주전남혁신도시(10,767명) 등의 순

-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는 2012년 이전에는 핵심생산인구가 외부로 순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 순유입 추세로 전환

그림 3-7 | 혁신도시별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14 | 혁신도시별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4,102	8,201	4,099
충북혁신도시	-81	6,102	6,183
전북혁신도시	13,445	18,243	4,798
광주전남혁신도시	-839	10,767	11,606
경북혁신도시	-232	8,092	8,324
경남혁신도시	3,059	5,564	2,505
제주혁신도시	-271	1,965	2,236
계	19,183	58,934	39,75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2012년 이후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모도시 및 수도권에서 핵심생산가능인구가 대거 순유입되었기 때문

- 2012년 이후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량 중 79%에 해당하는 31,414명이 모도시 및 수도권에서 순유입
-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8~2012년 13,119명에서 2012~2016년 32,772명으로 19,653명 증가

-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가장 많은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전북혁신도시
(12,071명), 광주전남혁신도시(6,389명), 강원혁신도시(4,570명) 등의 순

-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이전 1,380명에서 2012년 이후 13,141명으로 11,761명 증가

- 2012년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전북혁신도시
(2,644명), 광주전남혁신도시(2,579명), 강원혁신도시(2,222명) 등의 순

- 전북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되는 핵심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는 전북혁신도시
(2,405명), 경남혁신도시(1,742명), 경북혁신도시(1,335명) 등의 순

표 3-15 | 혁신도시별 · 지역별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

구 분		수도권	타 시 · 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계
강원혁신도시	`08-`12	595	222	806	2,479	4,102
	`12-`16	2,222	555	854	4,570	8,201
	증감	1,627	333	48	2,091	4,099
충북혁신도시	`08-`12	251	59	-145	-246	-81
	`12-`16	1,815	757	686	2,844	6,102
	증감	1,564	698	831	3,090	6,183
전북혁신도시	`08-`12	577	503	2,246	10,119	13,445
	`12-`16	2,644	1,123	2,405	12,071	18,243
	증감	2,067	620	159	1,952	4,798
광주전남혁신도시	`08-`12	-96	-75	-68	-600	-839
	`12-`16	2,579	911	888	6,389	10,767
	증감	2,675	986	956	6,989	11,606
경북혁신도시	`08-`12	-79	21	-49	-125	-232
	`12-`16	1,971	938	1,335	3,848	8,092
	증감	2,050	917	1,384	3,973	8,324
경남혁신도시	`08-`12	-37	465	898	1,733	3,059
	`12-`16	982	421	1,742	2,419	5,564
	증감	1,019	-44	844	686	2,505
제주혁신도시	`08-`12	169	14	-213	-241	-271
	`12-`16	928	366	40	631	1,965
	증감	759	352	253	872	2,236
계	`08-`12	1,380	1,209	3,475	13,119	19,183
	`12-`16	13,141	5,071	7,950	32,772	58,934
	증감	11,761	3,862	4,475	19,653	39,75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3) 종합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연령대 분석 결과, 핵심생산가능인구가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소년인구 23%, 이외 연령대 27%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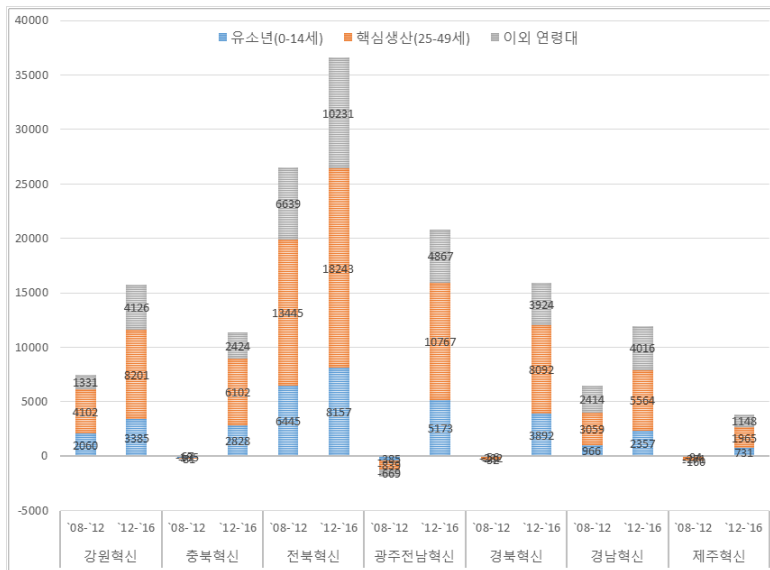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된 인구(116,193명) 중 핵심생산가능인구는 50.7%(58,934명), 유소년인구 22.8%(26,523명) 등으로 구성
-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는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외부로 순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 모두 순유입 추세로 전환

□ 2012년 이후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대부분이 모도시 및 수도권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의 57.4%는 모도시에서, 21.1%는 수도권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 중 모도시 유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전북혁신도시(67.2%), 광주전남혁신도시(63.1%) 등
 - 2012년 이후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 중 수도권 유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제주혁신도시(42.1%), 경남혁신도시(25.7%) 등의 순
 - 한편, 경남혁신도시는 주변지자체 등에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가 5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의 55.6%는 모도시에서 22.3%는 수도권에서 유입
 -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 중 모도시 유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전북혁신도시(66.2%), 광주전남혁신도시(59.3%) 등
 -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 중 수도권 유입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제주혁신도시(47.2%), 충북혁신도시(29.7%) 등의 순

-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2012년 이후 순유입된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 중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
-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제주도의 전반적인 인구 순유입 추세로 인해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그림 3-8 | 혁신도시별 · 연령대별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16 |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유입의 지역별 비중(2012~2016년)

구 분	유소년(0-14세)			핵심생산(25-49세)		
	수도권	모도시	기타	수도권	모도시	기타
강원혁신도시	24.7%	57.7%	17.6%	27.1%	55.7%	17.2%
충북혁신도시	23.6%	53.9%	22.6%	29.7%	46.6%	23.6%
전북혁신도시	15.8%	67.2%	16.9%	14.5%	66.2%	19.3%
광주전남혁신도시	21.2%	63.1%	15.7%	24.0%	59.3%	16.7%
경북혁신도시	20.3%	54.8%	24.9%	24.4%	47.6%	28.1%
경남혁신도시	25.7%	23.7%	50.7%	17.6%	43.5%	38.9%
제주혁신도시	42.1%	41.0%	16.8%	47.2%	32.1%	20.7%
계	21.1%	57.4%	21.6%	22.3%	55.6%	22.1%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17 | 혁신도시별 · 연령대별 순유입인구

구 분	연도	유소년 (0-14세)	핵심생산가능 (25-49세)	이외 연령대	계
강원혁신도시	`08-`12	2,060	4,102	1,331	7,493
	`12-`16	3,385	8,201	4,126	15,712
	증감	1,325	4,099	2,795	8,219
충북혁신도시	`08-`12	-185	-81	67	-199
	`12-`16	2,828	6,102	2,424	11,354
	증감	3,013	6,183	2,357	11,553
전북혁신도시	`08-`12	6,445	13,445	6,639	26,529
	`12-`16	8,157	18,243	10,231	36,631
	증감	1,712	4,798	3,592	10,102
광주전남혁신도시	`08-`12	-385	-839	-669	-1,893
	`12-`16	5,173	10,767	4,867	20,807
	증감	5,558	11,606	5,536	22,700
경북혁신도시	`08-`12	-56	-232	-32	-320
	`12-`16	3,892	8,092	3,924	15,908
	증감	3,948	8,324	3,956	16,228
경남혁신도시	`08-`12	966	3,059	2,414	6,439
	`12-`16	2,357	5,564	4,016	11,937
	증감	1,391	2,505	1,602	5,498
제주혁신도시	`08-`12	-94	-271	-160	-525
	`12-`16	731	1,965	1,148	3,844
	증감	825	2,236	1,308	4,369
계	`08-`12	8,751	19,183	9,590	37,524
	`12-`16	26,523	58,934	30,736	116,193
	증감	17,772	39,751	21,146	78,66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5. 혁신도시 순이동인구의 이동사유

1) 주거목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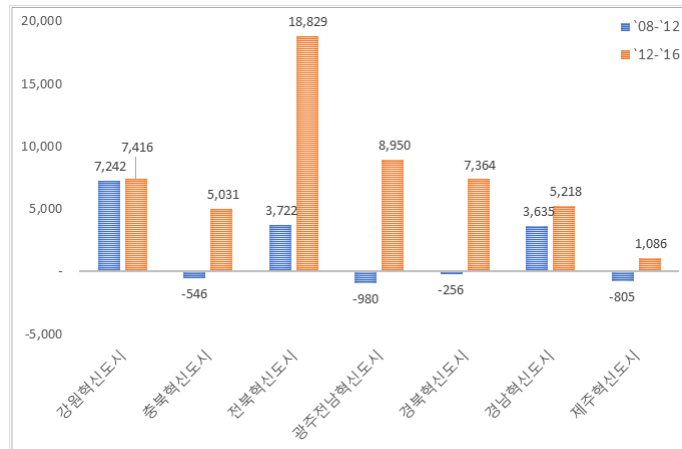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 중 주거목적으로 이동한 인구는 53,894명으로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

- 주거목적의 혁신도시 인구순유입은 2012년 이전 12,012명에서 2012년 이후 53,894명으로 4배 이상 증가

- 7개 혁신도시 중 2012년 이후 주거목적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혁신도시(18,829명), 광주전남혁신도시(8,950명), 강원혁신도시(7,416명), 경북혁신도시(7,364명) 등의 순

- 특히 충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주거목적으로 인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순유입추세로 전환

그림 3-9 | 혁신도시별 주택사유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18 | 혁신도시별 주택사유 순유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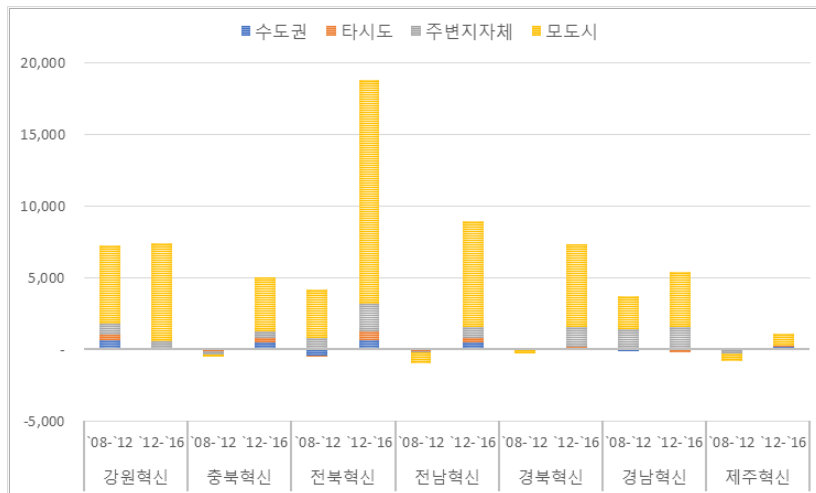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7,242	7,416	174
충북혁신도시	-546	5,031	5,577
전북혁신도시	3,722	18,829	15,107
광주전남혁신도시	-980	8,950	9,930
경북혁신도시	-256	7,364	7,620
경남혁신도시	3,635	5,218	1,583
제주혁신도시	-805	1,086	1,891
계	12,012	53,894	41,88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2012년 이후 주거목적으로 혁신도시에 순유입된 인구 중 약 94%는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주거목적으로 순유입된 인구의 81.9%(44,142명)는 모도시에서, 12.3%(6,641명)는 주변지자체에서, 3.5%(1,948명)는 수도권에서 유입
- 주거목적으로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혁신도시(15,615명), 광주전남혁신도시(7,401명), 강원혁신도시(6,868명), 경북혁신도시(5,792명) 등의 순
- 주거목적으로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혁신도시(1,990명), 경남혁신도시(1,567명), 경북혁신도시(1,363명) 등의 순

그림 3-10 | 혁신도시별 주택사유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19 | 혁신도시별 주택사유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

구 분		수도권	타 시 · 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계
강원혁신도시	`08-`12	646	386	806	5,404	7,242
	`12-`16	61	36	451	6,868	7,416
	증감	-585	-350	-355	1,464	174
충북혁신도시	`08-`12	-80	-50	-188	-228	-546
	`12-`16	518	265	508	3,740	5,031
	증감	598	315	696	3,968	5,577
전북혁신도시	`08-`12	-423	-34	825	3,354	3,722
	`12-`16	651	573	1,990	15,615	18,829
	증감	1,074	607	1,165	12,261	15,107
광주전남혁신도시	`08-`12	-82	-33	-55	-810	-980
	`12-`16	477	291	781	7,401	8,950
	증감	559	324	836	8,211	9,930
경북혁신도시	`08-`12	-30	-34	-12	-180	-256
	`12-`16	55	154	1,363	5,792	7,364
	증감	85	188	1,375	5,972	7,620
경남혁신도시	`08-`12	-127	112	1,281	2,369	3,635
	`12-`16	-31	-181	1,567	3,863	5,218
	증감	96	-293	286	1,494	1,583
제주혁신도시	`08-`12	-62	-	-221	-522	-805
	`12-`16	217	25	-19	863	1,086
	증감	279	25	202	1,385	1,891
계	`08-`12	-158	347	2,436	9,387	12,012
	`12-`16	1,948	1,163	6,641	44,142	53,894
	증감	2,106	816	4,205	34,755	41,88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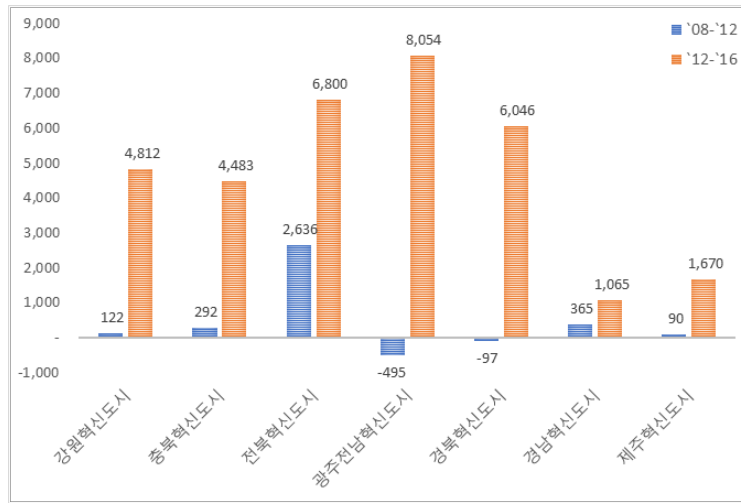
2) 직업목적 이동

□ 2012년 이후 직업으로 인해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32,930명으로 2012년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

-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2012년 이전 2,913명에서 2012년 이후 32,93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 2012년 이후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전남혁신도시(8,054명), 전북혁신도시(6,800명), 경북혁신도시(6,046명) 등의 순

-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는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에서 외부로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 순유입 추세로 전환

그림 3-11 | 혁신도시별 직업사유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20 | 혁신도시별 직업사유 순유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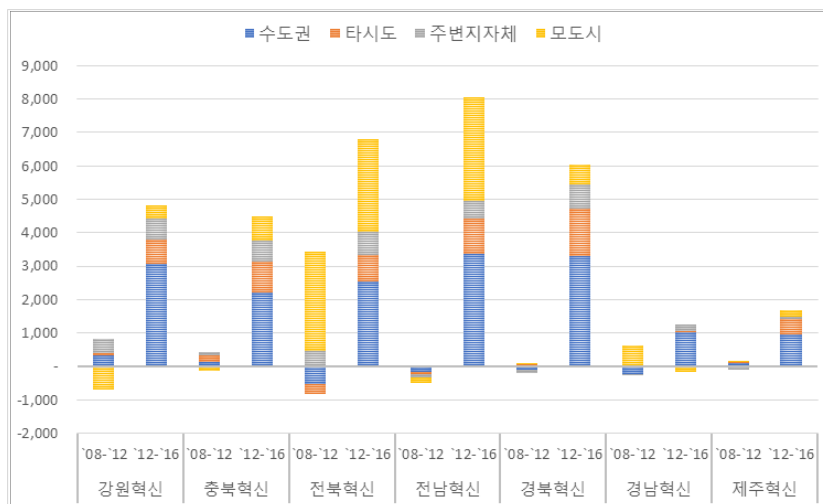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122	4,812	4,690
충북혁신도시	292	4,483	4,191
전북혁신도시	2,636	6,800	4,164
광주전남혁신도시	-495	8,054	8,549
경북혁신도시	-97	6,046	6,143
경남혁신도시	365	1,065	700
제주혁신도시	90	1,670	1,580
계	2,913	32,930	30,017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2012년 이후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중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2년 이후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의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 50%(16,469명), 모도시 23%(7,608명), 타 시·도 17%(5,426명), 주변지자체 10%(3,427명) 등으로 구성
 - 2012년 이전에는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직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입
- 2012년 이후 직업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전남혁신도시(3,358명), 경북혁신도시(3,291명), 강원혁신도시(3,058명) 등의 순
- 2012년 이후 직업목적으로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혁신도시(3,114명), 전북혁신도시(2,784명) 등의 순
 - 한편,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직업목적으로 혁신도시에서 모도시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 혁신도시별 직업사유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21 | 혁신도시별 직업사유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

구 분		수도권	타 시 · 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계
강원혁신도시	`08-`12	318	80	414	-690	122
	`12-`16	3,058	754	602	398	4,812
	증감	2,740	674	188	1,088	4,690
충북혁신도시	`08-`12	134	189	101	-132	292
	`12-`16	2,219	931	626	707	4,483
	증감	2,085	742	525	839	4,191
전북혁신도시	`08-`12	-527	-286	478	2,971	2,636
	`12-`16	2,557	786	673	2,784	6,800
	증감	3,084	1,072	195	-187	4,164
광주전남혁신도시	`08-`12	-169	-78	-68	-180	-495
	`12-`16	3,358	1,055	527	3,114	8,054
	증감	3,527	1,133	595	3,294	8,549
경북혁신도시	`08-`12	-104	60	-97	44	-97
	`12-`16	3,291	1,426	715	614	6,046
	증감	3,395	1,366	812	570	6,143
경남혁신도시	`08-`12	-225	-13	-34	637	365
	`12-`16	1,023	27	192	-177	1,065
	증감	1,248	40	226	-814	700
제주혁신도시	`08-`12	83	51	-87	43	90
	`12-`16	963	447	92	168	1,670
	증감	880	396	179	125	1,580
계	`08-`12	-490	3	707	2,693	2,913
	`12-`16	16,469	5,426	3,427	7,608	32,930
	증감	16,959	5,423	2,720	4,915	30,017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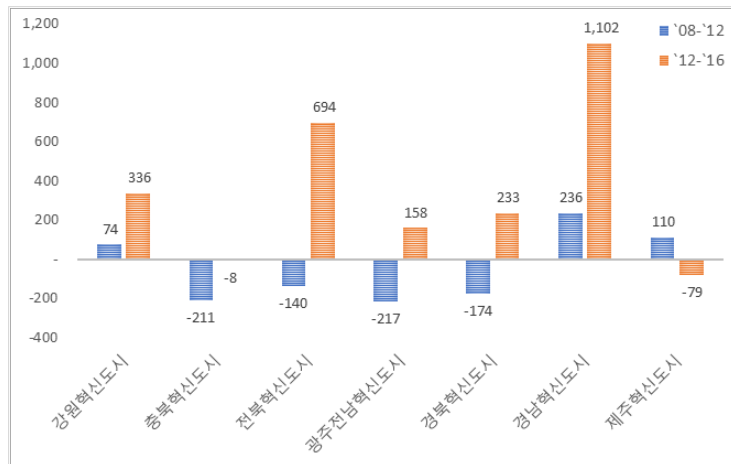
3) 교육목적 이동

□ 교육목적으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는 2012년 이후 2,436명으로 주거 및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남

- 2012년 이전에는 교육목적으로 인해 혁신도시에서 외부로 인구가 순유출(△322명)되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순유입(2,436명) 추세로 전환
- 2012년 이후 교육목적으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1,102명), 전북혁신도시(694명) 등의 순

- 충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교육목적으로 인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2012년 이후 순유입 추세로 전환
- 반면, 충북혁신도시, 제주혁신도시는 2012년 이후에도 교육목적으로 인해 인구가 소폭 순유출되고 있는 실정

그림 3-13 | 혁신도시별 교육사유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22 | 혁신도시별 교육사유 순유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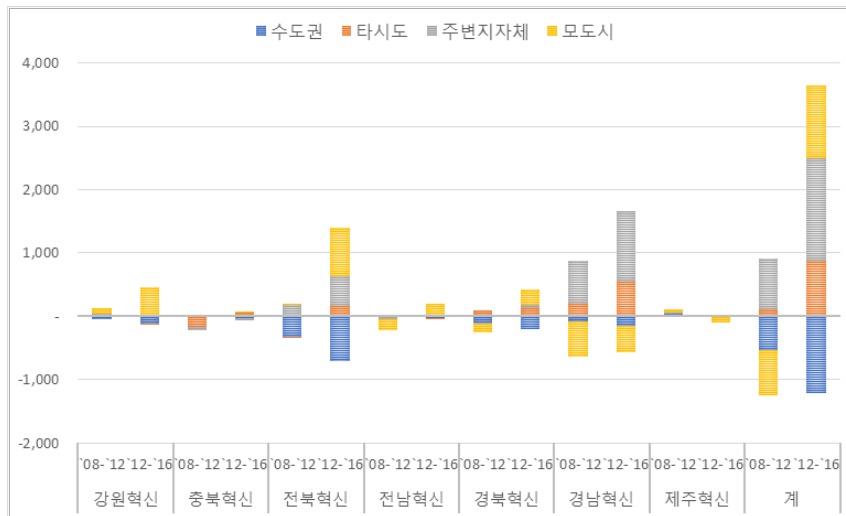
구 분	`08-`12	`12-`16	증감
강원혁신도시	74	336	262
충북혁신도시	-211	-8	203
전북혁신도시	-140	694	834
광주전남혁신도시	-217	158	375
경북혁신도시	-174	233	407
경남혁신도시	236	1,102	866
제주혁신도시	110	-79	-189
계	-322	2,436	2,758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교육목적으로 혁신도시에 순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은 주변지자체 및 모도시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교육목적의 인구이동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으로는 1,212명이 순유출된 반면, 주변지자체에서는 1,617명, 모도시에서는 1,158명이 순유입
- 즉, 2012년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목적으로 인해 혁신도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규모는 2008~2012년 539명에서 2012~2016년 1,212명으로 오히려 증가
 - 제주혁신도시를 제외한 6개 혁신도시에서 교육으로 인한 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한편, 경남혁신도시 및 제주혁신도시는 교육으로 인해 혁신도시에서 모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는 교육으로 인해 혁신도시 인구가 주변지자체로 순유출되고 있는 실정

그림 3-14 | 혁신도시별 교육사유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표 3-23 | 혁신도시별 교육사유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

구 분		수도권	타 시 · 도	주변지자체	모도시	계
강원혁신도시	`08-`12	-53	2	33	92	74
	`12-`16	-115	-13	4	460	336
	증감	-62	-15	-29	368	262
충북혁신도시	`08-`12	-9	-160	-42	-	-211
	`12-`16	-26	56	-42	4	-8
	증감	-17	216	-	4	203
전북혁신도시	`08-`12	-326	-19	188	17	-140
	`12-`16	-704	164	463	771	694
	증감	-378	183	275	754	834
광주전남혁신도시	`08-`12	-5	-5	-36	-171	-217
	`12-`16	-33	-8	11	188	158
	증감	-28	-3	47	359	375
경북혁신도시	`08-`12	-100	87	-21	-140	-174
	`12-`16	-197	132	58	240	233
	증감	-97	45	79	380	407
경남혁신도시	`08-`12	-81	194	677	-554	236
	`12-`16	-146	547	1,122	-421	1,102
	증감	-65	353	445	133	866
제주혁신도시	`08-`12	35	7	11	57	110
	`12-`16	9	-5	1	-84	-79
	증감	-26	-12	-10	-141	-189
계	`08-`12	-539	106	810	-699	-322
	`12-`16	-1,212	873	1,617	1,158	2,436
	증감	-673	767	807	1,857	2,758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4) 종 합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약 75%는 주택 및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이주

-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이동사유는 주택 46.4%(53,894명), 직업 28.3%(32,930명), 가족 12.4%(14,362명), 기타 10.8%(12,571명), 교육 2.1%(2,436명) 등으로 구성

- 즉,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해 유입된 인구(주택목적 유입 인구)가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유입된 인구(직업목적 유입인구)가 28.3%로 나타남

표 3-24 | 혁신도시별 · 이동사유별 순유입인구

구 분		주택사유	직업사유	가족사유	교육사유	기타사유	계
강원혁신도시	`08-`12	7,242	122	948	74	-893	7,493
	`12-`16	7,416	4,812	2,150	336	998	15,712
	증감	174	4,690	1,202	262	1,891	8,219
충북혁신도시	`08-`12	-546	292	59	-211	207	-199
	`12-`16	5,031	4,483	1,167	-8	681	11,354
	증감	5,577	4,191	1,108	203	474	11,553
전북혁신도시	`08-`12	3,722	2,636	-1,282	-140	21,593	26,529
	`12-`16	18,829	6,800	5,176	694	5,132	36,631
	증감	15,107	4,164	6,458	834	-16,461	10,102
광주전남혁신도시	`08-`12	-980	-495	45	-217	-246	-1,893
	`12-`16	8,950	8,054	2,343	158	1,302	20,807
	증감	9,930	8,549	2,298	375	1,548	22,700
경북혁신도시	`08-`12	-256	-97	300	-174	-93	-320
	`12-`16	7,364	6,046	1,939	233	326	15,908
	증감	7,620	6,143	1,639	407	419	16,228
경남혁신도시	`08-`12	3,635	365	711	236	1,492	6,439
	`12-`16	5,218	1,065	1,391	1,102	3,161	11,937
	증감	1,583	700	680	866	1,669	5,498
제주혁신도시	`08-`12	-805	90	-120	110	200	-525
	`12-`16	1,086	1,670	196	-79	971	3,844
	증감	1,891	1,580	316	-189	771	4,369
계	`08-`12	12,012	2,913	661	-322	22,260	37,524
	`12-`16	53,894	32,930	14,362	2,436	12,571	116,193
	증감	41,882	30,017	13,701	2,758	-9,689	78,66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순유입인구 중 주택목적 순유입인구는 대부분 모도시, 직업 목적 순유입인구는 주로 수도권 및 주변지자체 등에서 유입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목적 순유입인구의 경우 82%가 모도시에서 유입 되었으며 주변지자체에서 15%가 유입
 - 즉 상대적으로 노후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 비하여 신규 조성된 혁신도시가 양호한 정주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유입
- 직업목적 순유입인구의 경우, 50%가 수도권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주변지자체에서 27%, 모도시에서 23%가 유입
 - 즉, 직업목적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와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등 유입된 인구규모가 유사한 비중을 차지
 - 직업목적으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한 인구는 대부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로 추정

표 3-25 | 주택 및 직업목적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비율(2012~2016년)

구분	주택목적			직업목적		
	수도권	모도시	기타	수도권	모도시	기타
강원혁신도시	0.8%	92.6%	6.6%	63.5%	8.3%	28.2%
충북혁신도시	10.3%	74.3%	15.4%	49.5%	15.8%	34.7%
전북혁신도시	3.5%	82.9%	13.6%	37.6%	40.9%	21.5%
광주전남혁신도시	5.3%	82.7%	12.0%	41.7%	38.7%	19.6%
경북혁신도시	0.7%	78.7%	20.6%	54.4%	10.2%	35.4%
경남혁신도시	-0.6%	74.0%	26.6%	96.1%	-16.6%	20.6%
제주혁신도시	20.0%	79.5%	0.6%	57.7%	10.1%	32.3%
계	3.6%	81.9%	14.5%	50.0%	23.1%	26.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6. 종합 및 시사점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지역별 구성은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73%, 수도권 20% 등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 11.6만 명 중 모도시 순유입인구가 6.9만 명(5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2.3만 명(19.5%), 주변지자체 순유입인구는 1.5만 명(13.3%) 등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절반 가량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되며, 대부분이 모도시 및 수도권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 11.6만 명 중 핵심생산가능인구는 5.9만 명(50.7%), 유소년인구는 2.7만 명(22.8%), 이외 연령대 3.1만 명(26.5%) 등
- 한편, 혁신도시로 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 및 유소년인구의 50% 이상이 모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모도시의 고령화율 증가 및 활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핵심생산가능인구 5.9만 명 중 3.3만 명(55.6%)은 모도시에서 유입되었으며, 1.3만 명(22.3%)은 수도권에서 유입
 -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유소년인구 2.7만 명 중 1.5만 명(57.4%)은 모도시에서 유입되었으며, 0.6만 명(21.1%)은 수도권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전입사유는 대부분 주택 및 직업으로 인한 것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목적의 순유입인구는 대부분 모도시에서, 직업목적의 순유입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유입

-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순유입인구 11.6만 명의 전입사유는 주택 5.4만 명(46.4%), 직업 3.3만 명(28.3%), 가족 1.4만 명(12.4%), 교육 0.2만 명(2.1%) 등으로 구성

-
- 상대적으로 낙후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주민들이 신규 건설된 혁신도시의 주택을 선호하여 혁신도시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목적으로 혁신도시에 전입한 인구의 82%(4.4만 명)는 모도시에서, 12%(0.7만 명)는 주변 지자체에서 유입

- 직업목적으로 혁신도시에 순유입된 인구의 약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서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절반은 모도시 및 타 시·도 등에서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직업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의 50%(1.6만 명)는 수도권에서, 23%(0.8만 명)는 모도시에서, 17%(0.5만 명)는 타 시·도, 10%(0.3만 명)는 주변 지자체에서 유입

- 한편, 직업목적으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1.6만 명)는 대부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로 추정되며, 7개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 정원(3.2만 명)의 50% 수준으로 나타남

- 혁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교육목적으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목적으로 인해 주변지자체 및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입되는 추세

- 혁신도시가 건설된 2012년 이후에도 제주혁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에서 교육목적으로 인해 인구의 수도권 순유출이 지속

- 한편, 교육목적으로 혁신도시에 전입한 인구의 66%는 주변지자체에서, 48%는 모도시에서 유입되었는데, 이는 혁신도시가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교육여건을 보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2012년 이후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었으나, 일자리는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이동한 사유는 대부분이 주택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직업은 종전에 거주하던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

-
- 즉,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 대한 혁신도시의 인구 흡인력에 비하여 일자리 측면에서의 흡인력은 크지 않은 것을 의미

□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의 순유입인구 중 70% 이상이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유입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핵심생산가능인구 및 유소년인구로 나타나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는 총인구 감소, 특히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된 사유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완화방안 마련 필요
 - 혁신도시의 주택공급이 상당수준 완료되어 향후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순유출은 점차 둔화될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주민들의 혁신도시 유출로 인한 총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을 극복하고, 향후 추가적인 인구유출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추진 필요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현재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중 혁신도시 미이주 종사자(약 50% 수준)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 가능



4

CHAPTER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1. 기본방향 | 63

2.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 64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1. 기본방향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위한 지역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신도시로 개발된 혁신도시는 적정 생활서비스 공급에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도시규모 상 자족적 생활서비스 충족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결국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 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통상 2만 명 내외, 최대 5만 명 규모로서, 대체로 자족적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한 적정 도시규모에 미달하여 결국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각종 생활서비스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구 유출로 인해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사회·문화기반 및 생활인프라 공급기반이 축소 또는 침체될 경우 혁신도시에 적정 생활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제고뿐만 아니라,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가 보유한 생활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존의 혁신도시정책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종사자의 정착 등에 집중
 - 이 중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질적수준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경우, 유소년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존 혁신도시 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혁신도시 내부에 한정되었으나, 혁신도시 건설 이후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순유출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까지 확대 필요
- 즉, 혁신도시 정책 대상에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방안 포함 필요

2.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1)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 유소년 인구 및 자녀양육 연령대 인구의 증가에 대응한 수준높은 보육·교육여건 조성

- 혁신도시의 유입인구 특성을 감안하여 유아보육, 교육시설 확충 및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여건의 질적수준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
- 혁신도시 유입인구의 연령대는 보육 및 교육수요가 높은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및 유소년인구(0~14세)가 대부분을 차지
- 유아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적기 확충, 이전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지역개방 등 추진 필요
-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설정하여 수준높은 보육여건 조성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시설의 적기확충과 함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수준 제고 추진 필요

-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이전공공기관 탐방 및 체험을 통한 진로탐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수준높은 교육여건 조성

표 4-1 |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2016년)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계	41,084	100.0%	8,987	100.0%
국/공립	2,859	7.0%	4,696	52.3%
사립	38,225	93.0%	4,291	47.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생활서비스 연계 강화

- 혁신도시의 개발규모 상 의료 · 상업 · 문화 · 여가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모두 혁신도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족적 도시로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 혁신도시의 인구 규모는 대체로 2~4만 명 내외이므로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 종합 병원 등 상당규모의 배후시장을 필요로 하는 고차생활서비스를 혁신도시 내에서 공급 받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부족한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인접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공동이용 활성화, 연계교통망 및 대중교통 확충 등 추진 필요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생활서비스 공동이용을 위한 협약 체결, 특히 혁신도시-주변지자체 간에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서비스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약 및 공동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 추진 필요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주요 생활서비스 거점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노선을 중점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 제고 필요
 - 특히, 혁신도시-주변지자체 간 생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 및 주변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을 통한 광역적 대중교통체계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

- 혁신도시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도시 또는 주변지자체에 입지한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등 상급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응급이송체계 구축 등 추진 필요

- 이와 함께 혁신도시 내에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분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 공급 가격 인하 및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교통망 연계 강화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일자리는 종전 거주지인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유지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통근통행 증가에 대응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필요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통근연계 강화에 대응하는 한편, 앞서 언급한 생활서비스 연계 강화에도 기여 가능

- 이를 위해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통근수단, 기종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혁신도시별 통근특성에 부합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 전략 마련 필요

- 각 혁신도시별 통근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확충 및 환승체계 구축 등 적절한 교통연계 강화전략 추진 필요

□ 이전공공기관의 보유시설의 주민개방 · 공유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원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한 보육 · 문화 · 여가 · 체육시설을 혁신도시 및 모도시, 주변지자체 주민 등에게 개방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

- 이전공공기관의 시설 개방 및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 행 ·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2)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동반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제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완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정주환경 개선 추진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주거복지형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목적으로서, 혁신도시에 신규 공급된 주택,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환경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완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 ※ 가로주택 정비 및 자율주택 정비 지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공 리모델링 임대,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등 추진 가능

표 4-2 |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시

□ 개 념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이내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개 발 전 개 발 후 □ 지원사항 ○ (기금융자) 사업인가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재정지원)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용을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서 지원* ○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지자체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혁신도시 인구유출로 인한 상권 쇠퇴 및 침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중심시가지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위해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재래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사업, 중소도시 및 쇠퇴 구도심 등 정비사업, 도심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 복합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등 추진 가능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우선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중 인구유출이 큰 지역, 인구유출로 인한 상권 침체 및 공동화 등 ‘쇠퇴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현행 제도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 산업, 노후건축물 등을 기준으로 ‘이미 상당수준 쇠퇴가 진행된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⁷⁾

- 따라서 혁신도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중 혁신도시 인구유출로 인해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개정 필요

표 4-3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20조)

① 인구 :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퍼센트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② 산업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현재 5퍼센트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
③ 노후건축물 :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퍼센트 이상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동반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활용 추진

- 혁신도시 건설 이후 인구유출로 인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불균형성장 우려에 대응하여 혁

7)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신도시 개발·운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상생기금 조성 및 활용 촉진 필요

-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을 활용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이외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그러나 ‘혁신도시특별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기금 설치·운영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강제력이 없으며, 지자체 간 합의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10개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 중 전라북도만 기금을 설치·운영 중
- 즉,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지방세수입 증가분 중 일부를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원사업에 활용 가능
- 2012~2016년 간 전체 이전공공기관⁸⁾이 납부한 지방세는 총 4,038억 원 규모이며, 이 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지방세 납부액이 보다 증가할 전망⁹⁾
-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대폭 증가한 혁신도시 소재 시·군의 지방세 수입 중 일부를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모도시 및 주변 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

표 4-4 |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관련 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혁신도시 및 개별이전, 세종시 이전 등 전체 지방이전 공공기관.

9) 현재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혁신도시특별법’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표 4-5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현황(2012-2016년)

(단위: 억원)

구 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부산	-	0.4	2	208	238	449
대구		1	32	38	99	170
광주전남		0.3	10	79	155	245
울산			13	73	84	171
세종		0.1	3	20	24	47
강원		0.07	2	15	48	66
충북	5	4	11	23	26	70
충남	1	1	1	250	390	643
전북		1	6	16	21	46
경북	123	23	175	775	719	1,816
경남			7	70	219	297
제주		0.1	0.2	4	4	9
계	130	30	262	1,576	2,038	4,038

출처: 김도읍 의원실 보도자료(2017.6.27. “지방이전 공공기관 최대 수혜지 경북”). 수정 인용.

표 4-6 | 혁신도시 상생기금 운영 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전북혁신도시	▪ 전라북도 전북혁신도시 성과의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방안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초로 확정 ▪ 그러나 기금 조성규모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주변 지자체 지원사업 시행은 불투명한 실정 - 2017년 8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35억 원의 기금을 조성·운영할 예정 - 기금 적립액 35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전라북도 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실정
광주전남혁신도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성과의 공유를 위해 2006년 ‘혁신도시 개발운영성과 공유 협약’(2006.2.14.)을 체결 ▪ 협약을 토대로 2016년부터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나 지자체 간 견해 차이로 인해 기금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¹⁰⁾

-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광역시·도의 지원 강화방안 등 모색 필요
- 앞서 언급한 전라북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이전공공기관 납부 지방세액 중 일부를 활용하여 상생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적정 기금규모를 확보하기까지 곤란하여 실효성 있는 주변지자체 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

10) 광주광역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2017.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기금이 조기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광역시·도가 기금조성액 중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재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즉, 혁신도시 및 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로부터 이전받은 지방세액만큼을 정부 및 광역시·도가 기금에 출연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지원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혁신도시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공동세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세 제도는 미국, 독일 등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에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여 혁신도시 등 정부의 지역거점 개발로 인한 성과의 공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1. 요약 및 결론 | 75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

결론 및 향후과제

1.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인구이동분석을 통해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

- 연구대상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성장 및 주변지역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로 설정

- 분석대상: 강원혁신도시(원주),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 경북혁신도시(김천), 경남혁신도시(진주), 제주혁신도시(서귀포) 및 주변 지자체

-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지자체 등 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를 실증분석하여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

-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분 연구범위 및 대상을 혁신도시 또는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를 포함한 인구이동 분석 및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

□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11.6만 명이 순유입되어 혁신도시 소재지 자체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등 지방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11.6만 명이 순유입됨에 따라 혁신도시 소재지 자체의 인구는 약 8.7만 명 증가

- 혁신도시 순유입인구가 11.6만 명 증가한데 비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증가가 8.7만 명에 그친 것은 모도시의 인구가 약 3만 명 감소하였기 때문

- 즉,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경우에도 모도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되었으나,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총인구가 증가

- 2012년 이후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증가율은 4.5%p로 전국 인구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2012~2016년 전국 인구증가율은 1.5%p인데 비해,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증가율은 4.5%p로 3배 이상 높은 수준

- 이러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의 인구 증가는 지방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혁신도시가 입지한 7개 시·도의 인구 증가는 약 13.8만 명인데, 이 중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분은 약 8.7만 명으로 약 63%를 차지하는 등 지방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

- 한편,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순유입되면서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유소년(0~1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혁신도시 소재지자체는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구조를 유지

□ 한편, 혁신도시 순유입인구 지역별 구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순유입인구가 대폭 증가한 것과 동시에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 인구의 순유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후 7개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11.6만 명 중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2.3만 명으로 약 20% 수준이며, 모도시 순유입인구가 6.9만 명으로 약 59%, 주변지자체 순유입인구는 1.5만 명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2년 이후 혁신도시의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전공공기관 이원 대비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크지 않은 수준

- 7개 혁신도시의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2008~2012년 1,716명이었으나,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시된 2012~2016년 22,618명으로 대폭 증가

- 단, 7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인원이 31,840명인데 비해 수도권 순유입인구 (2012~2016년 22,618명) 비율은 약 71%로 다소 낮은 수준

-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6.9만 명,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1.5만 명이 순유출되는 등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 유출 현상도 동시에 진행 중

- 단,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대부분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지역경제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21년 이후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의 대부분이 주택목적으로 이동한 것이며, 일자리는 기존에 거주하던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유지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유입 촉진,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완화 등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보육 및 교육수요가 높은 유소년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유입에 대응한 혁신도시의 수준높은 보육·교육여건 조성 필요
 - 유아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내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수준을 전국 평균이상으로 설정하고 적기에 확충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주민개방 등 추진
 - 혁신도시의 수준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시설의 적기확충과 함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
- 생활서비스 공동이용 촉진 및 통근연계 강화에 대응하여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생활서비스 및 교통망 연계 강화, 이전공공기관 보유시설 개방 등 필요
 - 혁신도시에 부족한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인접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서 이용할

-
-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공동이용을 위한 지자체 간 협약 및 공동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등 추진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주요 생활서비스 거점을 연계하는 연계교통망 및 대중교통 확충 등 추진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통근수단, 기종점 등 통근연계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확충 및 환승체계 구축 등 교통연계 강화 추진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한 보육·문화·여가·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을 혁신도시 및 모도시, 주변지자체 주민 등에게 개방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간접적으로 지원
 -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의 동반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 및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운영 추진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인구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정주환경 정비 및 중심지가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을 위해 인구유출 및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개정 추진
 -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주변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한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광역시·도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혁신도시 주민,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정주환경 만족도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과제 마련 필요

- 본 연구는 혁신도시-모도시-주변지자체 간 인구이동 관계, 이동인구의 연령대, 이동사유 분석 등을 토대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주민의 체감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마련 필요

-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곤란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주민의 정주환경 만족도, 정주환경 개선 요구사항 등을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수요자인 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 필요

□ **혁신도시로 인한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의 경제·사회적 영향 전반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연구범위 확대 필요**

- 본 연구는 혁신도시가 모도시 및 주변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즉, 혁신도시 건설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근통학 연계, 기업 간 거래관계,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혁신도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REFERENCE



【인용문헌】

-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내부자료.
- 김도읍 의원실(<http://www.김도읍.com>). 2017. 6. 27. 일자 보도자료(“지방이전 공공기관 최대 수혜지 경북”).
- 류승한. 2017.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혁신도시 시즌2 전략포럼 자료집. 국토교통부.
- 강승수·서유석. 2016. 혁신도시가 기존도시의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연구. 주거환경. 14(4). pp.215-232. 한국주거환경학회.
- 김진범 외. 2012.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토연구원.
- _____. 2014. 혁신도시 정책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국토교통부.
- 광주광역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2017.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 권영섭 외. 2015.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지역생활권 내에서 혁신도시의 역할과 기능연구. p191. 국토교통부.
- 변재연.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서재교.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IF Report 2015-04.
- 아시아경제. 2014. 12. 4. 일자 보도자료([혁신도시] 革飛舊落 도시 몸살이 '처방 1순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http://kosis.kr>).

한국일보. 2017. 9. 5. 일자 보도자료([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구도심 쇠퇴 부르는 ‘블랙홀’... 멀어지는 균형발전).

【관련문헌】

건설교통부. 2005.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건설교통부. 2006.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여는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

건설교통부. 2007. 혁신도시 계획기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건설교통부. 2005.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전상경. 2014. 현대 지방재정론(제3판). 서울: 박영사.

수시 17-34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지 은 이 윤영모, 정우성, 송정현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 쇄 2017년 12월 28일

발 행 2017년 12월 31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비매품

ISBN 979-11-5898-305-5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15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7,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Issues of Population Growth and Migration of Innovation City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2장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현황

제3장 혁신도시의 인구이동 특성 분석

제4장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